



어느날 꼬마곰과 너구리가 놀고있는데 노루가 배 네알을 가지고왔습니다.

꼬마곰은 생각할 새도 없이 제일 큰 배알을 골라쥐었지요.

그렇지만 너구리는 그중 제일 작은 배를 쥐었습니다.

동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지요.

셋은 시원한 배를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작은 배를 쥔 너구리가 먼저 먹게 되었습니다.

배를 다 먹고난 너구리는 노루에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노루는 먼저 물러나갔는 너구리에게 남은 배 한알을 더 권했습니다.

《너굴아, 이걸 하나 더 들어.》

《아니, 난 많이 먹었어.》

《넌 제일 작은걸 쥐지 않았니. 어서 들어.》

이리하여 너구리는 배 한알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꼬마곰은 속이 알찌근하였습니다.

(그럴줄 알았으면 작은걸 질걸.)

다음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구리가 한턱 내기 위해 고구마 네알을 삶아 왔습니다.

보자기를 펼치고보니 고구마 역시 큰것이 있는가 하면 작은것이 있었습니다.

꼬마곰은 어제일이 생각나서 슬며시 작은 고구마를 골라 쥐였지요.

먼저 먹고 한알 더 먹는게 큰것 한알보다 나을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꼬마곰이 계 눈감추듯 고구마 한알을 거의다 먹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슴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걸 온 동산을 헤맸구나. 밤나무 꿀 다람쥐가 밤을 가지러 오라고 해서 알려러 왔어.》

《그래? 거참 반가운 소식이구나. 마침 고구마 한알이 남았는데 들려무나.》

너구리는 고구마를 사슴한테 권했습니다.

이리하여 꼬마곰이 견주고있던 고구마 한알은 사슴한테 갔습니다. 사슴한테 고구마를 준 너구리는 꼬마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큰 배알을 줘더니 오늘은 왜 작은 고구마를 줘여서 결국 뭉이 작아졌니. 정말 넌 먹을 복이 없는것 같애.》

그러자 옆에 있던 노루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먹을 복이 없는게 아니라 남보다 더 먹으려는 욕심탓인것 같애.》

꼬마곰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못했습니다.